

계속되는 작은 사랑 (A Little Bit of Love Goes a Long Way)

캐서린 모라로

국가형제회 청년위원회 봉사자

청년회 봉사자로 봉사하면서 ‘활동하는 젊은 이웃’이라는 일주일 봉사 활동에 매년 참석했는데, 멕시코의 고아원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일과 중, 그룹으로 활동하는 외에, 한 어린이를 선택하여 친구가 되는 활동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랑은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랑은 계속 됩니다”라고 봉사책임자가 말하면서, 일주일 뿐이지만 한 아이가 사랑과 관심을 더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청소년과 젊은이들에 다가갈 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짧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담고 있는지요? 우리가 가르치려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성공, 두려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지요?

여러 형제회에서 젊은이들이 재속 프란치스칸에 대하여 알고자 연락해 오거나 월례회에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방학 동안이나 직장을 찾고 있을 때, 집을 떠나 독립할 하려할 때 등 몇 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저희와 함께 하곤 합니다. 그들의 필요와 의도에 따라 지속적 또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위원회는 각 형제회가 스스로를 살펴봄으로서 젊은 회원을 맞을 준비하기를 권고해 왔습니다.

이 과제를 생각하면서 주교 시노드의 의안집을 읽으면서 우리 형제회를 활성화하고 인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쪽과 육쪽에서 찾았습니다. 약간 의역하면 형제회와 프란치스칸 영성이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젊은이들이 같은 목적을 갖게 격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도록 서로를 격려합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형제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젊은이들이 동참토록 초대하고 그들의 정의 구현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영적 여정의 진실된 경험을 편견 없이 젊은이들과 나눕니까?

우리는 교회와 형제회와 서로에게 충실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카리스마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상호 필요의 일치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활동하는 존재입니까?

젊은이들이 우리를 함께 일하고 책임을 나누는 가족으로 봅니까?

국가형제회 총봉사자 켄 파커는 2021 타우지 겨울호에서 시노드 의안집에서 사용되는 ‘예언자적 창조’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예언자적 창조를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에 응답하는 획기적 실천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은 젊은 가톨릭 형제자매들과의 여정을 격려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 22-23)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덕을 실천하고 성령과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가 이끄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재속 프란치스칸의 성소입니다. 작은 사랑이 멀리 가니, 많은 사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